

인천공항 가치점프 3기
우리들의 성장 일기



인천공항 가치점프

발행일 : 2023년 12월 22일

발행인 : 인천국제공항공사 ESG경영실 ESG경영팀

발행처 : 인천공항 가치점프 운영 사무국

-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숲길 51 5층
- 홈페이지 : www.value-jump.org
- 메일 : info@value-jump.org
- 연락처 : 070-4241-0501

디자인 : 달담디자인스튜디오

*인천공항 가치점프 수기집에 수록된 모든 내용의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본 수기집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을 사용하려면 사전에 발행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이학재입니다.

먼저, 취약계층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한 ‘인천공항 가치점프 3기’ 사업에 참여해주신 모든 청소년과 대학생, 학습센터, 그리고 사단법인 점프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대한민국 대표 공기업으로서 소외받지 않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 삼각 멘토링 체계를 갖춘 가치점프 프로그램에는 지난 1~2기를 통해 청소년(785명), 대학생(194명), 임직원(86명)이 함께 나눔과 협업의 가치를 배우고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 2월부터 10개월간 인천공항 가치점프 3기와 함께하며 100명의 대학생 멘토들과 372명의 청소년 멘티들 모두가 동고동락하며 노력한 결과를 이번 수기집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앞으로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주배경 청소년을 비롯한 다양한 배경의 청소년들의 교육격차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인으로서 한 단계 성장해나갈 대학생 여러분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이학재

이 학 재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점프 대표 이의현입니다.

우선 인천공항 가치점프 3기활동을 멋지게 마무리 한 대학생과, 청소년, 그리고 학습센터 관계자 여러분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모두가 어려웠던 코로나 시기에 지역사회의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멘토링 장학사업을 시작해, 변함없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점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회공헌 활동 파트너로 함께 할 수 있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역사회와 미래세대에 실질적인 임팩트를 제공하고, 청소년-대학생-공사임직원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의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기집을 읽으니 각 학습센터에서 올 한해 어린이, 청소년들과 함께 한 장학생들의 희로애락이 생생하게 느껴져 다시 한번 수고했다는 말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제 인천공항 가치점프의 자랑스런 알럼나이 여러분들이 각자의 꿈을 찾아가는 길을 응원하고 함께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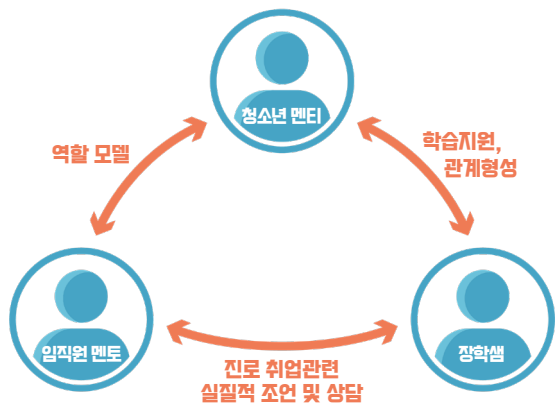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3년 12월
사단법인 점프 대표 이의현



프로그램 소개

인천공항 가치점프란?



인천, 경기 지역 이주배경 등 다양한 배경의 청소년이 건강한 지역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직원과 대학생들이 함께하는 삼각멘토링 프로그램입니다.

주최 및 주관



활동 기간

2023년 3월 ~ 12월

활동 장학생

100명

인천공항 가치점프 3기가 날아온 길

2월		사전 교육 및 발대식 2/22(수)
3월		
4월		
5월		대표 장학생 간담회 5/13(토)
6월		중간 보수교육 6/29(목)
7월	학습 멘토링 3월 ~ 12월	STEP 1. 가치점프 LAB 청소년 디자인 씽킹 교육 7/15(토)
8월		멘토링 데이 7/20(목)
9월		STEP 2. 가치점프 LAB 해커톤 8/19(토)
10월		STEP 3. 가치점프 LAB 실행 9월~11월
11월		학습센터별 장학생 간담회 10월~11월
12월		수료식 12/22(금)

인천공항 가치점프 3기 임팩트

활동 기간

2023년 3월 ~ 12월 (10개월)

매주 6시간, 43주 활동



100명의 장학생

(활동 수료율 91%)



372명의 청소년

(이주배경 청소년 비율 75%)



23개의 학습센터

(인천 14개소, 경기 9개소)

장학생 활동 시간 : **23,144 시간**

청소년 교육 시간 : **86,096 시간**

청소년 교육 기회 : **1,566,430,624 원**

학습센터 강사 인건비 : **329,000,000 원**

인천공항 가치점프 3기 사회적 성과

1,895,430,624 원

인천공항 가치점프 3기 활동 만족도



아이들과 가치 있던 한 해

#가치

#성장

#웃음가득

황지연

간석지역아동센터

아이들 덕분에 2023년은 가치 있는 한 해였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한 수업에서 퀴즈 대회 진행, 숨은 그림찾기, 마인드맵 그리기 등의 방식을 도입한 결과 아이들과 웃음이 가득한 멘토링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아이들과 함께 가치점프 LAB 활동에 참여하면서 아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에 공헌해 보는 멋진 일을 수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많은 것을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한 해를 보냈다는 것에 큰 뿌듯함을 느낍니다.

저 또한 아이들 덕분에 '공감'을 활용하여 '소통'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감대가 다른 세대의 사람과도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성장하였습니다.

저에게 인천공항 가치점프는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면서 웃음 가득했던 활동이었습니다. 값진 경험을 잊지 않고 마음속에 새기며 멋진 사회의 일원으로서 또 성장해나가겠습니다.



2023년 나와 꼭 함께한 ‘인천공항 가치점프’

성장
도전
보람
추억

나의 2023년의 시작과 끝은 ‘인천공항 가치점프’와 함께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처음에는 기대보다 걱정이 앞섰다. 초등학교 아이들과 말 한마디 나누는 것도 어색해하던 ‘나’였기에 초반에는 사실 아이들보다 내가 더 낯을 가렸을지도 모른다. 9개월이 지난 지금은 매주 서로 만나면 포옹과 다정한 인사말부터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또한, 일상을 살아가다가 재밌을 것을 발견하고, 맛있는 것을 먹을 때마다 ‘아 우리 아이들도 이거 좋아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변화된 나를 보며 깜짝 놀라기도 한다. 물론 활동 중간중간에 힘들었던 시간이 많았다. 체력이 안 따라 준 순간, 아이들에게 상처받은 순간들도 있었지만, 막바지에 다다르니까 좀 더 성장한 나를 보며 결국은 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2023년 올해 처음 만났지만, 항상 나와 함께하는 멘토링 시간을 기다려주고 가족같이 대해주신 아이들과 간석 아동센터 모든 사람에게 감사함을 전한다. 그리고 활동 중간중간에 큰 힘과 버팀목이 되어준 동료 장학생들에게도 고마움과 수고했다고 말해 주고 싶다. 덕분에 큰 탈 없이 행복하게 활동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 아이들이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건강하게 자라 행복하고 훌륭한 어른이 되기를 바란다.

서유현
간석지역아동센터



귀요미들, 신나는 수업 / 행복한 시간 되었길 바라!

언니동생

애정듬뿍

웃음 가득

재밌는 수업

정채소

간석지역아동센터

어느덧 활동 수기를 제출하는 날이 되었네요. 그만큼 아이들과 함께 지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처음 만남을 떠올려보면 아이들이나 저나 조금 어색했어요. 아동학을 전공하고 있지만 실제로 아동을 만날 기회가 많이 없었거든요. 첫 3월은 봉사 스케줄이나 아이들의 텐션에 적응하느라 솔직히 조금 힘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을 아이들과 보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멘토링이 제 일상이 되더라고요. 일상이 되고 난 후에는 멘토링이 마치 하나의 루틴으로 자리잡아, 수업이 없는 날엔 조금 허전하기까지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착한 아이들을 만나게 되어서 늘 수업에 열심히 참여해주었어요. 가끔은 먼저 제게 전화도 걸어서 “선생님 언제와요? 빨리 와요!” 라면서 재촉하기도 했네요.(ㅎㅎ) 저는 아이들의 영어학습을 돕는 멘토링을 주로 했는데요. 처음과 비교해보면, 세 아이 모두 영어 실력과 영어에 대한 흥미가 정말 많이 향상된 것이 눈에 보여서 참 뿌듯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배운 영어 내용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쌓은 여러 추억도 잘 안고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밝고 예쁘게 자라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간석지역아동센터 장학생들, 센터 선생님분들, 다른 센터 장학생들과 가치점프 사무국까지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오지 않을 1년

행복

부족

시작

다짐

올해 가장 잘한 일을 손에 꼽으라고 하면 인천공항 가치점프 3기 활동을 뽑을 것 같습니다. 올해가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있어서 아쉬운 마음이 큼니다. 빠르게 지나간 시간 속에서 아이들, 박수빈 선생님, 저를 포함한 6명의 장학생이 같이 활동을 참여해서 많은 경험과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같이 활동하며 도움을 주시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진우

강화군가족센터



아이들의 사랑이 따뜻했던 활동이었습니다

따뜻함

성장

사랑

김승주
강화군가족센터

이런 걱정과 함께 가치점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마음 한편에는 어떠한 편견과 선입견 또한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활동을 거의 마친 지금은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저 자신도 제 생각의 변화를 느낍니다. 아이들의 솔직하고 순수한 모습에 저 또한 많이 배웠던 1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과 친구들을 사랑하고 주변을 돌볼 줄 아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잊고 있던 소중함을 많이 깨우쳤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을 돌이켜보자면, 아이들과 함께한 가치점프 랩 활동이었습니다. 단순히 공부를 가르쳐주던 평소보다 아이들과 많이 소통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평소에는 몰랐던 아이들의 생각을 알 수 있었고, 덕분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활동하기 위해서는 제가 더 많이 알고 준비해야만 했는데, 그 과정에서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생각해보면서 더 깊게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정도 많이 들고,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하게 되어서 헤어짐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여러모로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또한, 매주 아이들과 함께 보낸 올해가 굉장히 따뜻했습니다. 아이들과의 추억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강화군가족센터에서의 사계절

여정

성장

사계절

함께

김혜교
강화군가족센터

2023년 봄, 새로운 만남이 시작된다는 설렘 반, 1년 동안 잘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 반으로 나섰던 강화도까지의 여정이 여름과 가을을 지나 어느덧 겨울까지 와있습니다. 강화도에서 매주 아이들과 공부도 하고, 게임도 하고, 또 기타도 치며 알게 모르게 서로 스며든 것 같습니다. 어느새 아침에 아이들을 맞이하고 데리러 오신 부모님과 인사하며 아이들을 배웅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진 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먼 거리 덕분인지, 이곳에서는 일상생활의 걱정에서 조금은 벗어나 바람도 쐬고 아이들과 즐겁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던 동료 장학생들과도 서로 의지하고 응원을 해주며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더 재밌는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어떤 공부를 할까 점점 더 열띤 토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장학생들이 먼 길을 온다며 항상 응원해주시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하나부터 열까지 성심성의껏 도와주신 박수빈 센터 선생님의 배려는 1년간 꾸준히 활동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가치점프 활동을 하며 참여하게 된 '멘토링 데이'에서는 접하지 못했던 분야와 직업에 대한 저의 시각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멘토 분들과 현장에서의 이야기를 듣고 조언을 구하는 경험을 하게 되어 뜻깊었습니다. 나눔을 실천하고자 참여한 인천공항 가치점프 활동은 이렇게 오히려 저에게 나눔을 주었고, 특히 아이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에 더욱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사계절을 함께한 강화군가족센터의 아이들, 강화도까지 길고 먼 여정을 함께 해온 동료 장학생들, 센터 선생님, 가치점프 담당자님께 마지막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



같이의 가치가 실천되는 강화군가족센터

성장

감사

나눔

선생님이라는 이름을 갖기에 너무나 부족하지만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잘 따라주었던 아이들 덕분에 1년 동안 활동을 무사히 해낸 것 같습니다. 센터까지의 거리가 멀어서 매번 방문하는 발걸음이 쉽진 않았지만, 아이들과 만나 소통하면 센터에 오기 귀찮았던 제 마음이 눈 녹듯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귀한 아이들과의 만남에 감사하고 항상 옆에서 도움 주셨던 가치점프 담당자님들과 센터 선생님께 무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박수민

강화군가족센터



즐거움 가득했던 강화군가족센터

보보로쌔

책임감

추억

이제 선생님과 수업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아이들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쿨하게 보내준다고 말할 땐 언제고 집 갈 때쯤에 뽀로로 선생님 없으면 너무 아쉽겠다고 중얼거리는 아이를 보니 이 활동이 끝나감을 확 실감했습니다. 매주 먼 길 학업과 병행하며 활동하느라 피곤한 순간들도 있었지만, 저에게 아이들과의 만남은 언제나 즐거움이었습니다.

얼떨결에 맡은 대표 장학생이라는 타이틀에 조금은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열심히 노력하며 책임감에 대해서 배우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말 자신도 내면적으로 많이 성장했음을 느낍니다. 또, 이 활동을 잘 해낼 수 있었던 건 센터 선생님, 가치점프 관계자분들, 그리고 동료 장학생들과 아이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항상 고맙고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매주 만날 때마다 수업이 끝난 후 동료 장학생들과 강화도 맛집 부수기 프로젝트를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ㅎㅎ. 동료 장학생들과 너무나도 정들었는데 벌써 활동이 끝나가니 아쉽습니다. 이 활동으로 좋은 사람들과 소중한 추억을 가득 안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따뜻함 가득한 연말 되세요!

김태경

강화군가족센터



지금의 1년을 미래의 10년으로!

보람

깨달음

성찰

성장

처음에는 가치점프 활동이 제 생각대로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멘토링 활동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저의 생각대로 따라오지 않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원인이 저와 아이들의 눈높이가 달랐다는 것을 깨닫고, 저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멘토링을 진행했더니 아이들도 재미있어하며 수업에 잘 따라와 주었습니다. 이 경험은 타인을 대할 때, 자신의 관점이 아닌 타인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저와 다른 경험을 한 장학생들과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조언해주며 저의 진로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깊은 고찰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비록 1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에게는 장학생으로서의 1년이 미래의 10년을 결정지을 수 있는 성장의 반침대를 쌓을 매우 귀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우

꿈나무지역아동센터

성장할 수 있었던 기회

성장

행복

긍정

처음에는 아이들을 내가 잘 지도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다가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려와는 달리, 아이들은 저를 반겨주었고, 잘 따라와 주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저도 그때의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9개월간의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학습지도 외에도 센터 꾸미기, 요리 교실, 체육활동 등의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좋은 추억도 많이 쌓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또한, 저의 어떠한 점이 부족한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를 잘 챙겨주시고 항상 잘 반겨주셨던 센터장님과 간사님, 그리고 저희 꿈나무 지역 아동센터 장학생분들께도 굉장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대학 생활의 마지막 가치점프로, 그리고 한 해를 이렇게 뜻깊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굉장히 뿌듯하고 좋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 또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민욱

꿈나무지역아동센터



선생(先生)의 입장이 되어보기

부제 : 먼저 태어나 사는 사람으로서

진로경험쌓기

사회문제해결

고민거리를주는

기억에남는선생님

도움이되길바라며

김아영

꿈나무지역아동센터

현재 대학에서 국제통상학과 행정학을 전공하면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위해 공부하고 있다. 이론은 학교에서 배우고 있어 현장의 모습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교육 봉사 활동을 시작했다. 2학기 때부터는 중학교 2학년 영어를 고정적으로 가르쳐주면서 나의 제자가 생겼다. 기초가 부족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내신 시험 대비까지 하려니 시간이 부족한데, 알려주고 싶은 것들은 많아서 어려웠다. 직접 자료를 찾아보면서 교재를 만들면서 수업을 준비했는데, 학기 중에 시간도 노력도 많이 들더라도 아이들이 나의 수업을 좋아하고 유대 관계를 만들어지는 과정이 보람되었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의 중간고사 성적이 최소 10점 이상씩 오르고, 100점을 맞은 친구도 있었기에 굉장히 뿌듯했다. 열심히 달려온 친구들을 위해 중간고사 보상으로 야외수업도 진행하면서 즐거운 추억을 쌓았다. 중등부를 담당하면서 만나지 못했던 초등부 아이들을 다시 만났을 때, 나를 잊지 않고 먼저 인사한 친구들도 있어 또 새로운 마음이 들었다. 가치점프를 진행하면서 교육 불평등, 다문화 가정, 기회에 대해 고민을 하며 현재 존재하는 사회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학생들이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진 않지만, 그 시간 동안 아이들에게 와닿는 말 한마디나 미래에 대해 생각할 거리를 제공해주려고 노력했는데 그 마음이 잘 와닿았기를 바란다.



꿈나무 물 주러 갔다가 함께 자란 나

배움_나누고_배움

웃음

아이디어뱅크들

처음 지원할 때, 내가 배움을 나눠주고 아이들을 성장시킬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렇기에 초반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고, 가르쳐야 할지에 대한 고민과 부담이 컸다. 특히, 초등부를 담당하다 보니 학습 분야의 모호함도 더해졌다. 센터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한국어 수업이나 기초 문제 풀이를 돕고, 소통에 주목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약 10개월 동안 만나다 보니 아이들이 점점 크는 것도 느껴지고, 아이마다 잘하는 부분, 취약한 부분들도 보이기 시작했다. 아이들과 이야기 하다 보면 순수한 질문이나 아이디어를 받는 데, 이 이야기로 많은 생각이 드는 날들이 있기도 했다.

또한, 활동하면 아이들과의 소통 외에도 센터 선생님들, 외부 강사님들, 주방 선생님들, 공익 선생님들 등 다양한 분들과도 소통하게 된다. 때로는 내 고민을 함께 나누기도 했고, 함께 좋은 학습 공간을 위해 학습자료를 만들거나 센터 페인트칠도 함께했다. 이 과정을 통해, 센터 아이들을 위해 정말 많은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정말 큰 애정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있음이 느껴졌다.

이처럼 인천공항 가치점프를 통해 맺어진 꿈나무지역아동센터와의 인연과 추억이 내 20대의 소중한 기억과 경험으로 남을 것 같다. 그리고 배움을 나누러 간 곳에서 나 또한 많은 배움과 웃음을 얻게 되어 활동이 끝나감에 있어 매우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김소라

꿈나무지역아동센터



기다려주고 존중하며 성장했던 가치점프

성장

기다림

뿌듯함

가치점프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활동하는 시간이 멘티들의 성장을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했으나 되돌아보니 처음부터 끝까지 저 또한 성장하는 시간이었음을 느꼈습니다. 첫 수업에는 말수도 적고 어색해하던 멘티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제가 센터에 오면 반갑게 맞이해주고 말도 계속 걸어주며 친근하게 대하는 모습으로 변해갈 때 큰 뿌듯함을 느낀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가치점프 LAB 활동을 위해 인천공항에 갔던 날에 살짝 늦게 도착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아이들이 달려와서 '선생님 안녕하세요!'라며 반겨주던 모습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멘티들을 가르치다보면 처음 배우는 것들에 익숙치 않아 어려워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멘티들이 아직 미숙해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면서도 조금은 답답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근데 돌아켜보니 저도 처음 어린 친구들을 대해보고 저한테는 너무 익숙해진 내용들을 처음 배우는 멘티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에 누구보다 미숙했던 건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제가 제 멘티들이 해낼 수 있도록 응원하며 기다려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멘티들이 저의 미숙한 설명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부족한 설명에 대해 이해가 안 간다며 다시 질문해 주었습니다. 결국 처음에 미숙했던 건 오히려 저였고 그 시간을 기다려주고 저를 선생님이로 존중해준 제 멘티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에빈

늘푸른지역아동센터



꿈쟁이 아이들과 함께 꿈을 꾸다.

인내

책임

꾸준함

처음 지원할 때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간단하고 편한 활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2월에 시작한 활동은 점점 저를 지쳐가게 했습니다.

주 2회 6시간을 꿈쟁이 아이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지냈고 꾸준히 센터에 방문하여 멘토링 활동을 진행하는 데 시간을 쏟아야 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할 것도 많고 해야 할 과제도 많았기에 활동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신청한 활동이며 이미 아이들과 소통하였고 제가 맡은 아이들을 생각해 책임감을 갖고 활동에 임했고 힘들어도 꾸준히 센터에 방문하여 아이들과 공부하였습니다.

매주 꾸준히 센터에 방문하였고 점차 적응을 할 수 있었고 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선택한 결정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고 그로 인한 저의 책임감을 키웠으며 공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부활동도 하면서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돌이켜보면 꿈쟁이지역아동센터에서 가치점프 활동이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윤중

꿈쟁이지역아동센터



한 눈에 보이는 제목

수환

현지

나영

가영

#택정

김택정

너머인천고려인문화원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저희의 기록이 남겨지는 수기집이니 마음이 따뜻해지는 편지를 남기고자 합니다.

수환샘! 항상 멋있는 수염과 패션이었습니다. 뚜렷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멋있었고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의 삶을 너무나도 응원합니다!

현지샘! 조금 늦게 들어오셔서 많이 친해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긴 거리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 가르치시는 모습이 너무 귀한 거 같아요. 늦게라도 합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영샘! 선생님이 계셔서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초반에 언어의 장벽에서 저를 구원해주시는 선생님의 모습은 그저 빛이었습니다. 든든했지만 그렇기에 미안한 부분이 더 많았는데 모든 부분 짚어지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항상 감사했습니다!

가영샘! 그만 좀 노세요. 사고뭉치 한 명 더 있어서 조금 편하긴 했는데 뭐... 그냥 그래요ㅋㅋ 지각 좀 그만하고, 사고 좀 그만치고, 행복하세요 ㅎㅎ

이렇게 보면 제가 수기도 쓰고 젤 열심히 한 것 같지만 (?) 사실 그게 맞습니다..ㅎㅎ 열심히 좀 하시기 그러셨어요 ㅎㅎㅎ 그래도 이렇게 편지 쓰니까 너무 좋네요~ 열심히 한 저 자신을 가장 칭찬합니다~
여러분들 다들 앞으로의 삶 화이팅입니다! 아프지 말고 종종 연락하면서 고민상담도 하고, 서로가 필요할 때 한걸음에 달려옵시다!! 너머인천고려인문화원 화이팅!!



내가 너희들의 기억한 편에 있었으면 좋겠다

약속

서투름

고마움

매주 센터에 가는 것은 해외여행을 온 기분이었다. 삼사, 샤오로마 등 추천받은 중앙아시아 음식을 도전해보고,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해 나도 그들의 언어를 배우며 색다른 경험을 했다. 낯설어서 아무 말도 안 하던 첫 만남에서 이제는 틈만 나면 공원에서 놀자며 자기주장을 확실하게 표현하는 아이들이 웃프다. 더 다양한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게 아쉽고, 마지막 수업 날짜를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해 걱정이다. 항상 활기가 넘치며 게임을 좋아하는 키릴과, 마스크를 쓰고다녀서 항상 얼굴이 궁금했던 보기에는 안전한 티마, 구글맵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던 예술감각이 뛰어난 라디온, 수업이 너무 어려우면 몰래 눈물을 흘리는 아나스타샤, 수학 문제를 너무나도 당당하게 틀리고 가끔가다 서프라이즈로 등장하는 옐리세이, 그 외에도 블라디크, 아리나, 막심 등 많은 아이와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행복했다. 우리 아이들은 멋지게 성장하며 지금처럼 항상 초딩에너지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손가영

너머인천고려인문화원



장학샘으로 보낸 2023

놀푸른
루피콩아
보경샘

일 년간 심 없이 달려온 가치점프가 드디어 마무리되네요. 대외활동 경험이 많지만 이렇게 장기적인 대외활동은 처음이라 길다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가치점프가 끝나면 매주 만나던 센터 아이들을 이제는 더 이상 자주 보지 못 본다는 점이 가장 아쉽고 크게 느껴질 듯해요. 정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착하고, 순수하고, 귀엽고 제가 가면 격하게 반겨주던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을 것 같아요. 멘티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차고 뿌듯하고 저도 많이 배우며 성장한 느낌이 들어요.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흘러 2023년을 돌이켜보면 가치점프가 크게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가치점프 담당자분들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최보경

놀푸른지역아동센터



어렵지만 조금씩, 함께 성장할 수 있었던 가치점프!

새로움

성장

다른시각

도전

아쉬움

김은비
부천새날학교

활동 소감을 쓰려니 1차 서류를 붙고 한껏 기대에 부풀고 행복해하던 저의 모습이 떠오르네요! 작년 12월의 간절했던 저의 바람이 이루어져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활동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주 배경 청소년들과의 가치점프 활동은 타인의 시선으로도 세상을 바라볼 힘을 길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청소년들과 소통의 어려움을 느꼈고, 높고 커다란 장벽을 깨야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씩, 천천히 다가갈수록 보이지 않던 서로의 손이 보였고 함께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각과 타인에 대한 배려는 서로를 이해하는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함께 활동했다면 더욱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소 아쉽게 끝난 3기 활동에서 더 나아가 4기 장학생으로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정말 가치 있던 활동이었습니다. 좋은 기회를 주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가치점프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가치점프 3기 장학생을 끝마치며...

- # 친화력이_좋은
- # 자신감이_있는
- # 관찰력이_뛰어난
- # 성실한
- # 관대한

김용준
부천새날학교

어느새 12월이 다가오며 활동의 끝이 보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전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첫 대외활동이어서 걱정도 기대도 많았는데, 생각보다 훨씬 알차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인천공항 가치점프 3기 장학생으로서 약 1년 동안 15명의 아이를 만나 국어와 수학을 알려줬습니다. 아이들에게 선물을 받을 만큼 가까운 사이가 된 거 같아 뿌듯합니다. 아이들에게도 저에게도 서로 성장하는 계기이며 행복한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웠던 가치점프 멘토링 활동

뿌듯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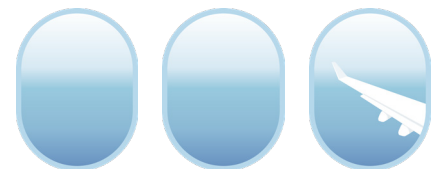
성장

책임감

즐거움

지금까지 가치점프 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가치 있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활동 중 외국인 멘티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또한 멘티들이나 센터, 그리고 보수교육, 임직원 멘토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새로운 경험도 해보고 여러 사람과 교류하면서 배워 한층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활동이 얼마 남지 않아 아쉽지만,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예진
부천새날학교



기다림의 시간

성장

기다림

함께

희망

박지윤
부천새날학교

수업을 약 4개월 넘게 진행하던 중 학생들이 과연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걸까? 의문이 들었다. 했던 수업 내용을 복습 삼아 2-3번 다시 알려줬을 때 들었던 생각이다. 내가 잘 못 가르쳐서 이해가 어려운 건지, 아이들이 집중하기 어려운 건지 헷갈려 고민이 많았다.

1학기 마지막 시간이라 아이들의 분위기를 환기하고자 색다른 수업을 진행했다. 서로 롤링 페이퍼를 작성해 상대에게 작은 메시지를 남기는 시간을 가졌다. 물론 나도 함께했고 마지막인 만큼 아이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꼭꼭 담아 길게 작성했다. 아이들은 한국어 실력이 서툴기에 짧게 썼겠구나 하고 생각했다. 순서가 다 지나고 다시 내 이름이 적힌 종이를 받았을 때 많이 놀란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수업 시간엔 많이 서툴렀던 아이들이 약 7-8줄을 빼곡히 쓴 것이다. 나에게 배운 국어 문법이 틀릴까 지우고 쓰고를 반복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아이들은 자신의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윤샘을 부르며 시작한 문장의 끝엔 '선생님이 꼭 기자가 되면 좋겠어요. 그럼 매일 뉴스를 볼게요.'라고 적혀 있었다. 꿈에 대해 배우는 수업 시간에 '지윤샘은 꿈은 뭐예요?'라고 묻는 아이에게 '언론인이 되고 싶어.'라고 했다. 아이들이 언론이란 단어를 어려워하여 '뉴스~ 방송하는 사람 같은 거야.'라고 했더니 다들 나의 꿈을 기자로 기억한 것이 귀엽게 느껴졌고 고마웠다.

내가 아이들에게 관심을 두는 만큼 아이들도 나를 바라보고 있음을, 양방향의 수업을 하고 있음이 맞음에 안도하게 됐다. 아이들과 소통하고 맞춰나가는 과정이 나에게도 기다림이었고 항상 성공적이지만은 않았기에 더욱 뿌듯함이 느껴진다. 아이들도 나와 의 시간을 오랫동안 간직할 만한 지윤 선생님이었길 바란다.



가치점프, 소통을 통해 찾은 성장의 길

소통

성장

꾸준함

삼혜진
부천새날학교

제가 가치점프에 지원한 동기는, 누군가를 가르치며 의미 있는 봉사를 하고 싶다는 열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활동 막바지인 지금 돌이켜보니 저 자신이 더 많은 것을 배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멘토링과 학원 아르바이트 경험을 하며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이 익숙한 일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처음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청소년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은 예상보다 낯설고 새로웠습니다. 이렇게 저와 청소년이 함께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 익숙한 것을 새롭게 인식하고, 언어 소통의 어려움 속에서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여섯 시간, 총 8개월의 활동을 마치고 수기를 쓰기에 앞서, 활동 시작 전에 쓴 자기소개서를 다시 읽어 보았습니다. “용기를 위해서는 희망을 품어본 경험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소년들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희망을 복돋아 줄 수 있는 장학생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거창한 목표였던 것 같아 조금 부끄럽기도 합니다. 허나 저와 함께 자모부터 배웠던 학생들이 지금은 만나면 밝게 웃으며 인사하고 근황을 얘기해주는 것을 보니, 함께한 순간이 한국에서의 의미 있는 시작이었던 것 같아 뿌듯한 마음이 큼니다. 제가 가치점프 활동을 통해 교훈을 얻은 것처럼, 학생들에게도 저와의 시간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눈높이를 맞추고, 서로의 마음을 맞추고.

맑음

눈높이

소통

긍정

공감

봄이 다가오는 3월, 멘티들과 처음 만난 날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드디어 멘토링 선생님을 만난다며 반갑게 달려오던 멘티도 있었고, 부끄러운지 쭈뼛거리며 수줍게 다가오는 멘티도 있었습니다. 모두 기대에 차서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친해지는 시간을 여러 번 가진 후 멘티별 선호 과목과 수준에 맞추어 선택한 문제집을 풀어나갔습니다. 사이사이에 놀이터에서도 놀고, 간식도 사 먹고, 산책도 다니면서 교감을 하였습니다. 멘티들과의 만남은 어느 순간 일상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고 사진첩에는 함께 찍은 추억 사진들이 가득해졌습니다. 10개월이라는 긴 호흡으로 만나는 것이다 보니 더욱 정이 들게 되었습니다. 멘티들은 저와 만나는 내내 맑고 긍정적인 힘을 주었습니다. 조금 지친 하루에도 멘티들과 공부하다 보면 곧 미소를 띠며 집에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멘티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소통하고, 공감하며 만남을 이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활동 중간에는 인천공항 가치점프에서 진행되는 보수교육도 받으면서 멘티들과 더욱 효과적인 소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멘티들의 실력 향상과 변화를 마주할 때는 보람을 느끼고 뿌듯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인천공항 가치점프 3기 장학생으로서 활동하며 얻은 소중한 경험은 저의 성장에도 큰 영양분이 되어 줄 것입니다.

유혜린

부천시민연합 부설 지역아동센터 도깨비



함께 성장했던 10개월

따뜻함

성장

활기찬

부딪힘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10개월간의 활동이 벌써 끝이 보인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처음 센터에서 아이들과 만났던 날이 아직도 생생하다. 생각 이상으로 활기차고 말이 많은 아이들을 마주하고 내가 이 아이들의 에너지를 따라갈 수 있을까 걱정했던 기억이 있다. 공부보다는 놀고 싶은 생각이 앞섰던 아이들에게 어떤 멘토가 되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많았다.

처음 했던 걱정들이 무색하게, 의젓한 고학년 아이들과 함께하며 행복했다. 공부하기 싫다고 말하면서도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고 똑 부러지게 공부하는 아이들이었다. “지금까지 했던 멘토링 중에서 가장 좋았다” 라는 담당 멘티의 말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이러한 아이들의 긍정적인 말들이 더욱 애정을 갖고 멘토링에 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담당 아이들뿐만 아니라 센터의 아이들 모두 낮가림 없이 먼저 다가와 주고 반겨주어서 멘토링을 가는 나날들이 행복했다. 이렇게 밝고 긍정적인 아이들과 10개월이라는 시간을 함께하며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후회 없는 활동이었다. 아이들 덕분에 성장할 수 있었기에 고마운 마음이 들고, 나 또한 아이들에게 좋은 멘토로 기억되고 싶다.



신현아

부천시민연합 부설 지역아동센터 도깨비

가치 점프 = 같이 점프

성장

도약

뿌듯함

제목처럼 가치 점프 활동을 통하여 멘토와 멘티가 같이 성장하며 도약할 수 있었던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10개월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동료 장학생 친구들과 서로 의지하며 도와준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았고 특히 센터장님, 원감님, 팀장님께서 잘 이끌어준 덕분에 무리 없이 완주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의미 있고 귀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주신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더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인천공항 가치점프 3기 파이팅!!!

이대환

서곶지역아동센터



불안한 미래에 확신을 준 내 인생의 변환점, 인천공항 가치점프

미녀팀장

무서운선생님

같이놀고싶은선생님

힘들지만행복

인생최고경험

임다은

서곶지역아동센터

미래에 대한 불안감만을 안고 살아가던 나의 대학교 4학년, 나는 인천공항 가치점프를 만났다. 서류 지원부터 면접까지 쉬운 일이 하나도 없었지만 나는 왠지 가치점프와 함께할 것만 같았다. 처음 아이들을 만났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아이들이 더 잘 했으면 하는 마음에 화도 냈기에 나를 무서워하는 아이들도 있다. 하지만 바로 같이 놀고 싶다며 안기는 아이들 덕분에 길고 길었던 10개월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다. 퇴근할 시간이 되면 “안 가면 안 돼요?” 하며 나를 붙잡던 아이들, 이 아이들과 이제 헤어져야 한다는 게 너무 많이 아쉽다.

서곶지역아동센터 장학생들의 팀장으로서 누구 하나 지치지 않도록 이끌어왔다. 나는 그 누구보다 우리 팀원들에게 감사하고 또 감사한다. 나를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이끌어주고 때로는 옆에서 항상 함께였던 듩직한 대환 오빠, 귀여운 사투리를 쓰지만 나보다 어른스러운 소중한 교은이, 길쭉하고 예쁜데 성실하기까지 한 우리 막내 가은이. 이들이 있었기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나는 이제 두려움 없이 모든 일에 도전한다. 항상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다독여주시는 인천공항 가치점프 덕분이다. 확실하게 말 할 수 있다. 이 활동은 나의 인생의 변환점이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함께 수업하고 팀원들과 고충을 나누며 으쌰으쌰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 시간이 지나도 나의 기억 속에 자리 잡을 소중한 추억이다.

누군가가 나에게 이 활동을 할까 말까 고민한다면 나는 주저 없이 말할 것이다.

인천공항 가치점프는 당신의 인생을 바꿔 줄 것이라고!



초보 장학생 탈출기

열정

질문폭탄

친구같은장학생

칭찬왕

박교은

서곶지역아동센터

감정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가장 큰 노력을 쏟았던 10개월이라 그 런지 여러 감정이 복잡미묘하게 든다. 오랜만에 본 자기소개서에선 온전히 멘토의 입장,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는 입장에서만 생각했던 10개월 전의 초보 장학생이 있었다. 선생님이라는 역할에만 초점을 맞춰 멘토링을 채워가려고 했던 무모하지만 패기 있는 시작 이었다.

역시 아이들에겐 선생님이로 불리는 언니/누나의 역할이 필요함을 첫 날부터 깨달았고 매주 다양한 전략을 세워 아이들에게 질문 폭탄 을 던졌다. 주말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아이들의 자랑거리에 칭찬하 는 것부터 말장난과 응석을 받아주면서도 잘못된 행동에 대해선 명 확하게 알려 줄 수 있는 단호함을 보여주기까지 10개월이 걸렸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다고 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아이들을 통해 순수 함을 많이 보았다. 장난꾸러기 생쥐 영혼이 들어왔다는 아이, 예쁜 선 생님이라고 불러주는 아이 그리고 스스로 다 풀고 조금만 틀렸다고 자 랑하러 오는 아이 등 제각기 다른 매력으로 장학생에게 다가오는 만 큼 우리도 아이들이라 다르게 대해야 한다는 생각은 잠시 두고, 각자 가진 개성으로 아이들과 함께 어울린다면 멘토링 중 엄청난 활력소가 될 것이라 장담한다. 아이들에게서만 들을 수 있는 풍부한 표현들은 현생에 집중하기 바쁜 20대에게 소소한 재미를 줄 수 있는 중요한 요 소이니 꼭 놓치지 말 것!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우리

변화

뿌듯함

기쁨

상호작용

서가은

서곶지역아동센터

새 학기를 아이들과 함께 시작했던 기억이 생생한데, 벌써 두 번째 학기가 마무리되어갑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았을 이 시간 동안, 우리는 많은 것들을 같이 겪고 성장해온 것 같습니다.

처음 아이들을 마주했던 날, 그날 저는 제가 여태껏 가졌던 생각들과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되었고, 이후 아이들과 만나는 날이면 날마다 제 생각들은 다양한 방면으로 조금씩 변화해 갔습니다.

아이들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리라 하고 자신했던 것과는 다르게, 오히려 아이들이 제게 알려주는 것들이 하나하나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활동이 나에게 인생에 있어서 큰 터닝포인트가 되겠구나하고 느껴 더욱 진심으로 임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이 많은 아이들과 지내면서 저도 정 많은 사람이 되어갔고,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주면서 제 자신감도 채워져 갔으며, 아이들이 사소한 것에도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작은 행복까지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주 수업을 하고 보고서를 쓰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제가 변화하고 아이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에게 좋은 작용으로, 또 좋은 기억으로 남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인천공항 가치점프 3기 활동은 제게 많은 것들을 주었습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함께 성장했던 10개월간의 가치점프

성장

인내

추억

박가영

송의지역아동센터

발대식 때만 해도 길다고만 생각했었던 10개월이 벌써 지나가서 한 달 남짓한 시간만을 앞두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동안 수업을 하며 함께 즐겁게 웃기도 하고 저의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을 때는 꾸짖기도 하며 아이들과 같이 저도 성장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처음엔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이 큰 부담으로 다가왔었습니다. 하지만 예나, 예령, 예희, 민규 4명의 아이들과 처음 만났을 때 저를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봐주었던 모습에 열심히 해보자 다짐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엔 집중하는 것을 힘들어하던 아이들이 매주 수업 시간을 함께 보내며 문제집을 다 끝내기도 하고 고민을 털어놓을 땐 언니, 누나로서 따뜻한 응원을 해주려 노력했습니다. 아이들이 저의 바람대로 따라주지 않아 인내하고 고민하는 시간도 분명히 있었지만 되돌아보니 스스로 한 단계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의 대학 생활 중 잊지 못할 기억이 될 인천공항 가치점프! 끝까지 함께 달려와서 뿌듯하고 감사했습니다 :)



너무 빠른 1년, 많은 걸 얻은 1년

뿌듯함

견학

성적향상

라포

행복

이동원

송의지역아동센터

센터에 방문한 첫날, 이번 1년이 쉽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업 때 뛰어노는 아이들, 제 말을 끊으면서 집중하지 않는 아이들, 앞에 선생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듯 행동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참을성, 인내심이 많이 성장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되돌아보면, 이렇게 [인천공항 가치점프] 활동을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새 지나가 버린 1년을 돌이켜 보면 저는 단 한 순간도 웃고 있지 않았던 순간이 없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4월, 5월에는 저를 볼 때마다 아이들이 반겨주기 시작하였고, 어느새 여름방학에는 아이들이 저의 뒤를 따라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10월, 11월이 되자 아이들은 점점 이별을 실감하게 되었고, 몇몇 아이들은 울음을 보이면서 저를 떠나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많은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인천공항 가치점프 3기]로 보냈던 이 시간은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들과 함께한 이 시간을 잊고 싶지 않은 것처럼, 아이들도 나중에 커서 저를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덕혜, 건우, 예원, 민지와 함께 한 2023

성장
동행
도전
극복

박윤서

송의지역아동센터

인천공항 가치점프는 저에게 도전이었습니다. 영어만 가르쳐 온 저에게 국어, 수학을 가르쳐야 하는 상황이었고 아이들과 수업을 하며 오래된 기억 속의 학습되었던 내용과 지식을 꺼내 가며 아이들과 함께 난관을 헤쳐 나갔습니다.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점점 친해져 가며 오히려 맞춰가야할 것들이 많았고 바라는 것도 달라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과 저의 진심은 모두 끝까지 함께 하기 위해 노력하며 맞추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어도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아이들과 맞춰가며 진심으로 소통하는 법과 소통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아이들과 함께한 모험을 통해 많은 것을 얻은 2023이었습니다.



필름 카메라를 든 사진가로서의 지난 일 년

필름카메라

뿌듯함

동반성장

청소년 멘티들에게 “필름 카메라를 든 사진가”와 같은 멘토가 되고 싶다는 일념으로 시작하였던 인천공항 가치점프 3기. 현상 전에는 어떠한 결과의 사진이 찍힐지 모르는 필름 카메라의 특성처럼, 최종합격 그리고 발대식 당시에는 나에게 어떤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게 될지 몰랐다. 하지만 9개월이 흐른 지금은 “2023년 나를 가장 발전시킨 활동”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며, 오래도록 내 가슴 한편에 두꺼운 사진첩을 남기게 해 준 활동으로 기억될 것이 틀림없다. 특히 청소년들의 학업적 성장과 정서적 성장을 함께 이뤄내며 느꼈던 뿌듯함 외에도 청소년들의 성장이 나의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전달해 줌으로써 가능하였던 동반성장은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에도 한 번 더 힘을 낼 수 있게 했던 동력이었다.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해주신 인천공항 가치점프 3기 사무국 담당자님들께 감사드리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여러 측면에서 많이 부족한 선생님이었음에도 잘 믿고 따라와 주고 항상 밝게 반겨주던 아이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에게도 너무 고맙다는 말 전해주고 싶다.



정소영

아이원지역아동센터

새로운 인연을 선물해 준 활동

추억

성장

새로운인연

인천공항 가치점프 3기 장학생으로서의 하루하루는 새로운 인연을 선물해 준 가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보통 비슷한 관심사나 추억을 가지고 있는 또래 친구들과는 달리, 저와는 다른 추억을 공유하고 있는 아이들의 관심사를 파악한 후 다가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저에게 새로운 추억과 경험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10개월 동안 매주 만나오던 아이들과 한 주가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이제는 일상의 한 부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든 아이들과의 시간이 벌써 끝을 향해 왔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컸습니다. 함께 공부하며 아이들이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고, 소소한 일상 얘기를 하며 아이들과 점점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다른 세대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하나 하나 마주해 가며 해결함으로써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활동으로 만난 새로운 인연들을 활동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이어나가 고자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얻은 경험을 통해 그러한 상황을 잘 마주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 또한 얻었습니다.

진다희

아이원지역아동센터



같이 성장한 약 일 년

같이

성장

편안

사실 이 활동을 지원하기 전 정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지, 잘 가르칠 수 있을지 등 고민이 있었다. 그러나 어떤 것을 시작하기 전 걱정이 앞서 나에게 온 기회를 놓쳐버렸던 나였기에 앞으로는 달라지고 싶었다. 또한 아이들을 가르치며 아이들과 같이 나도 성장하는 기회를 만들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다.

활동하면서는 항상 같은 일자, 같은 시간대를 비우는 것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개인적인 일정으로 방문하지 못할 때는 보강 날짜를 정하는 것도 어려웠다. 그러나 갈 때마다 귀엽게 반기는 아이들과 개인적인 이야기를 털어놓는 아이들 덕분에 뿌듯함과 재미를 느꼈다. 더불어, 내가 가르치지 않는 학생도 놀자고 나를 먼저 찾아주어 행복했다. 중, 고등학생 아이들의 경우 편안한 멘토가 되고 싶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 과정에서 나도 많은 걸 깨닫게 되었고 아이들과 정서적 유대를 쌓게 되어서 좋았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10개월이었지만 아이들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나도 같이 성장하고 누구보다 편안한 멘토가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던 활동이었다. 또한, 장기적이기에 더욱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활동할 수 있었다. 부족한 멘토였지만 말 잘 듣고 마음의 문을 열어준 아이들에게 고맙다고 전하고 싶다.

이다영

아이원지역아동센터



함께 성장한 시간

행복

성장

감사

약 1년간 센터에서 학생들과 함께하면서 행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낯을 가려 힘든 점도 있었지만 조금씩 알아가다 보니 친구처럼 재밌을 때도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학습을 주안점으로 두니 여러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특히 원칙과 계획을 중시하는 성향인지라 많은 변화와 도전을 필요로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에 대한 해결책은 제가 아닌 학생들에게서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수업방식을 저에게 제안해 주기도 했고 러시아어를 알려주겠다고 하여 언어 교환 형식의 수업도 했습니다. 이처럼 제가 되려 아이들로부터 얻어 가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좋은 기회를 얻게 되어 감사합니다.



정수진

안산시고려인문화센터

좋은 걸음이 될 나의 멘토링

첫 시작

나도 배움

너도 배움

병아리교사

저는 교육활동을 하고 싶어서 지원한 것도 있지만 당시 저는 고민과 걱정이 많았었기 때문에 한 곳에 집중하며 에너지를 얻을 곳이 필요했습니다. 첫 대외활동이 10개월이라는 중장기라 처음 3개월은 힘들었고 다음 3개월은 적응했고 현재는 끝나는 것이 아쉬울 정도입니다. 망망대해 위에 떠다니는 가랑잎처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학교생활과 병행하는 것이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와중에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고민하던 시간이 있었기에 온전히 아쉬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활동 수기를 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0개월간 '이 활동이 나에게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나? 좋은 선택이었나?'를 생각했습니다. 중반까지만 해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지만 확신은 모자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 있게 좋은 경험이었고 이 시간으로 인해 앞으로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멘토링 구성은 물론, 청소년과의 관계 형성, 동료 장학생 등을 통해 배운 점도 많고 한층 더 성숙해진 것 같습니다.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멘티가 귀엽게 "안냐세..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한 것도, 멘티에게 알려준 아바라(아이스 바닐라 라테)를 직접 사용하는 모습을 본 것도, 저를 매주 예쁘게 그려주는 멘티도, 3월에는 "stop"이라고 하던 멘티가 이제는 "기다려주세요.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모습도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김세현

안산시고려인문화센터

내 인생 최고의 성장

성장

기쁨

사랑스러움

감동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10개월 동안 많은 추억을 쌓았다. 초반에는 인터넷에 있는 교재로 수업하며 나도 지루하고 멘티들도 지루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학교에 다니면서 배운 '놀이 중심 수업'을 하자라는 생각이 들어 한국어와 수학을 체육, 미술, 음악과 같이 섞어 융합 놀이를 하며 학습을 지도했다. 그러다 보니 멘티들도 정말 재미를 느끼고 나도 즐기면서 가르치며 라포 형성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것도 느꼈다. 또한 사정이 생겨 수업을 못 하거나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갈 때 아쉬워하며 가지 말라는 멘티들의 말을 들으면서 행복하기도 감동이기도 했다. 하루하루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의 학습적인 면도 성장하고 나도 함께 발걸음을 맞추며 성장했다. 멘토링을 해 본 경험은 많지만 이렇게 장기간으로 한 적은 처음이다. 처음엔 1년을 정말 채울 수 있을까? 정말 친해질 수 있을까? 라는 고민도 많았지만 활동하고 같이 놀며 더할 나위 없는 기쁨과 행복을 느낀 것 같다. 센터에서 활동하고 공사에서 멘토링을 받으며 '성장'은 매우 중요하고 멘토와 멘티가 한마음으로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성장, 인천공항 가치점프 모든 대학(원)생에게 추천하고 싶은 활동이다!

이소희

안산시고려인문화센터



함께하는 새로운 성장

힐링

행복

성장

러시아에서 온 학생들과 일 년을 함께 했다.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만 할 줄 아는 학생들도 있었고, 쉬운 말들을 조합하여 한국어로 의사소통은 가능하지만 복잡한 대화는 불가능한 학생도 있었다.

처음에는 ‘공부’를 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이 꽤 있었던 거 같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학을 잘했으면 좋겠고, 받아쓰기를 잘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공부하기 싫어할 때마다 잠깐씩만 쉬고 다시 공부로 돌아왔었다.

멘토링 과정에서 같이 놀이하는 과정조차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지도를 좋아하는 학생과 전국의 로드맵을 같이 보는 과정에서 확대, 축소, 동서남북 등과 같은 새로운 단어들도 접해볼 수 있었고, 로드맵 속 보이는 가게들에 대하여 대화하는 과정에서도 새롭게 어휘를 배우는 과정들이 많았다.

예상했던 거와 달리 공부도 과제도 너무나도 벅찼던 일 년이었다. 배차 간격이 클 때는 센터까지 왕복 3시간이 넘을 때도 가끔 있었기에 지하철에서 공부한 적도 많았다. 하지만 도착한 센터에서는 늘 아이들이 환한 웃음으로 맞아주었고, 내가 준 거 이상으로 학생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아 다시금 재충전하고 오는 시간이 되었다.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게 해 준 인천공항 가치점프 프로그램에 감사하다.

곽의정

안산시고려인문화센터



아이들과 함께 성장했던 소중한 시간

성장

배움

행복

소중함

활동을 시작하는 센터 첫날 센터 선생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타국에서 온 아이들이 ‘이곳에 내 편이 많구나, 이곳에서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많구나’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 시간 동안 이 말을 온전히 지켰는지는 확실히 대답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처음보다 저를 편안하게 생각해주고 적극적이고 밝아지는 아이들을 보면서 안도감이 들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활동을 시작할 때 저는 제가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활동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활동하면 할수록 저 또한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센터에 계신 모든 선생님과 원장님께서 센터에 있는 모든 아이를 온 힘을 다해서 챙겨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따스함”이라는 감정을 몸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문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소통의 장벽을 느끼기도 하고, 부족한 저의 모습에 좌절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가치점프라는 활동이 저에게는 잊지 못할 하나의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저로 인해 어려운 타국 생활에 조금이라도 즐거움이 남았길 바라고, 앞으로도 저와의 순간들이 좋은 추억으로 떠오르길 바랍니다. 2023년이 가치점프로 인해 가장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김수빈

온누리다문화평생교육원



같이 성장, 행복 두배

함께

성장

보람찬

새로운친구

박주비

온누리다문화평생교육원

가치점프 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제가 과연 멘티들과 의사소통도 원활히 되고 잘 이끌어 갈 수 있을지 많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래도 저와 1년 동안 함께 할 멘티들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활동하였고, 지금은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학습을 도와주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며 멘티들이 저로 인해 성장할 때마다 뿌듯함을 느꼈고, 저 또한 멘티들과 함께하면서 배려, 나눔, 이해를 배우며 많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어색함은 사라지고 지금은 만나면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입니다. 이렇게 저희 관계가 단순히 멘토, 멘티를 넘어선 친구가 되었음에 정말 기쁘고 보람칩니다.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분들, 가치점프, 학습센터 선생님들 그리고 멘티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더 넓은 세상에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사람이 도와주고 함께 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첫 대외활동 경험

성취감

아쉬움

성장

인천공항 가치점프는 제 첫 대외활동이었습니다. 가볍게 지원한 활동이었는데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멘티들과 어떻게 지내야 할지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초등학생인 아르툐와 스타스는 둘이 있으면 개구쟁이가 되어 종종 다투곤 했지만, 금세 다시 장난을 쳤습니다. 게임과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라 관련된 활동들을 했습니다. 승부욕이 가득한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가끔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힘들었지만, 그 과정속에서 아이들과 어떻게 대화해야 좋은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중학생인 디아나와 안젤리나는 제가 제안하는 활동들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줬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같이 그림을 그리던 때가 떠오릅니다. 주말 오전이라 자주 늦지만^^.. 센터에 오려고 노력해주는 모습이 기쁩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저와 10개월을 함께 보내준 멘티들에게 미안하고 고맙기도 합니다. 그리고 멘티들을 만나 편안하게 멘토링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온누리다문화평생교육원 선생님들께도 정말 감사합니다. 각자 학업 등으로 인해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함께 활동을 해주신 김수빈, 박주비, 조유빈 장학생분들께도 감사합니다.

제 멘티들을 비롯한 많은 다문화 청소년들을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멘티들이 지금처럼 즐겁게 웃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늘 응원하겠습니다.

남진희

온누리다문화평생교육원



매일매일 JUMP하는 중

성장

감동

성취

부딪

처음에는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경험이 있으니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활동을 시작하고 나니, 학원에서 아이들을 대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가르쳐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작정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닌 유대감을 충분히 쌓은 후에 수업을 시작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덕분에 활동이 거의 다 끝나가는 지금, 아이들이 저를 많이 생각해주고 믿고 따라와 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멘토와 멘티의 관계가 아닌 친한 언니/누나 동생의 관계가 된 거 같아 뿌듯합니다. 처음에는 영어를 하기 싫어하고 관심도 없었지만 수업이 진행되면서 영어에 조금이나마 관심을 두기 시작하였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으로 개인학원을 추가로 등록한 아이도 있었습니다. 활동기간 동안 아이들도 성장하고 저 또한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10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활동을 잘 마무리한 제 자신에게 많은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최다연

온누리사랑 지역아동센터



나의 2023 = 온누리사랑

성장

가치

뿌듯함

감동

김나은

온누리사랑 지역아동센터

3월부터 아이들과 매주 함께했는데 벌써 올 한 해가 다 갔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시간이 빠르게 흐른 것 같아 아쉽네요. 한 해 동안 노력한다고 노력했지만, 더 빠르게 친해져서 더 달하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더 좋았을 거란 아쉬움이 가득해요. 제가 올 한 해 동안 맡은 온누리사랑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은 힘들고 지쳐도 매일 센터에 출석하고, 공부하기 싫어도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아이들이었어요. 수업을 잘 따라와 준 멘티들의 모습이 정말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특히 고3 친구는 센터에서 저와 함께 대학 수시 원서를 썼어요. 결국 1지망 대학에 턱하고 붙었어요. 원서를 쓰는 과정과 원하는 대학 합격 순간까지 함께해서 더욱더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이제는 대학을 먼저 다녀본 선배로서의 경험을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또,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은 저와 가장 오래,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어떤 날은 센터 앞 공원에 나가 산책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영어 공부에는 흥미를 못 느낄 땐 각자 좋아하는 팝송 가사를 해석해 보며 영어 공부를 하기도 했는데 그 모든 순간이 추억으로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올 한 해 가장 의미 있었던 일이 무엇이냐고 제 스스로 묻는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인천공항 가치점프 장학생' 활동을 꼽을 것 같아요. 매주 두 번씩 만나면서 멘티들과 함께한 대부분의 날이 좋았지만 분명히 힘든 날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건 모두 멘티들 덕분이예요. 멘티들에게 한 해 동안 잘 따라와 줘서 정말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너도 나도 가치점프!

성장

끈기

성취감

길 것만 같던 10개월의 활동이 벌써 끝난다는 게 사실 믿기지 않고 실감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서로가 어색했던 아이들과의 첫 만남이 너무 생생하게 떠오르는데, 어느덧 지금은 서로 쉬는 시간에 끊임 없이 대화를 나누고 장난을 칠만큼 가까워졌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학업과 병행하는 만큼 활동이 쉽지만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낄 때도 많았고, 초반에 아이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서운함도 느꼈습니다. 그러나 활동이 끝나가는 현재 시점에서 예전보다 아이들과 많이 가까워진 것을 느끼고 아이들의 영어 실력이 향상된 것을 볼 때마다 다른 활동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가치점프 활동을 이어 나가면서 상대를 이해하는 태도를 배우고 저 자신이 끈기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아이들이 모두 성장할 수 있는 이러한 귀한 기회를 주신 인천국제공항공사 가치점프의 모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한비

온누리사랑 지역아동센터



함께 배우는 수업

함께배움

연대감

책임감

협업

소통

석지훈

온누리사랑 지역아동센터

인천공항 가치점프를 하며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이 있습니다. 처음 아이들과 만난 건 반 배치 테스트를 볼 때였습니다. 반 배치 테스트가 끝나고 시험을 못 봤다고 생각한 아이가 시험지를 내며 '이런 걸로 저희를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라며 울먹이며 나간 학생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차차 생각해보니 아이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도 아니고 같이 수업하고자 하는 의지 있는 학생들을 테스트 하나로 저버리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센터와 함께 소통한 뒤에 테스트를 본 모든 아이와 함께 수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이런 저의 마음을 아는지 수준이 달라도 서로서로 알려주고 같이 문제 풀이를 하는 등 지금은 잘 따라주고 활동을 할 때도 자신의 의견을 잘 피력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때 이야기를 하며 아이들과 웃기도 합니다.

또 아이들과 함께하며 가르치기만 한 게 아닌 배운 것도 많았습니다. 새로운 세대와 소통을 해보면 앞으로 커갈 아이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었고 중간에 이사를 하게 되어 많이 멀어지게 되었지만, 아이들과의 약속이라 생각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마음가짐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장학샘과 청소년 학생들의 같이 점프하는 이야기

고난
성실
재미
성장

아직도 첫날, 첫 수업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싶어 많은 양의 PPT와 간식들을 준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아이들에게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해나가고 싶은지와 노민 장학샘은 어떤 장학샘이 되었으면 하는지에 대해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딱딱한 수업과 자신들의 성적 향상만을 목표로 하는 장학샘을 원하지 않았고 재밌고 웃긴 장학샘, 친근한 장학샘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막바지로 온 지금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그래도 아이들에게 조금은 친근한 장학샘이 되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때 당시 누구보다 공부하는 것이 싫었고 놀고 싶었고 학원 가는 것이 싫었던 한 명의 청소년이었기에 공감하고 재미있는 장학샘이 되고자 평생 팔자에도 없을 틱톡도 찍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치 점프라는 활동을 통해 아이들만 학업적 성장하며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아닌 저도 여러 세대와 융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한 명의 장학샘으로 가치를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같이(가치) 점프할 수 있어 너무나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아이들도 언젠가 노민 장학샘을 떠올리면 “아 그때 그 웃긴 쌤?” 하며 입가에 미소가 그려질 수 있는 장학샘으로 남고 싶습니다.

노민

온누리지역아동센터



10개월, 우리가 함께 성장한 시간

교감
보람
정
성장
추억

기대도 했지만 나름의 걱정을 안고 시작했던 활동인데 벌써 끝나간다니 아쉬운 마음이 크다. 그동안 장학생으로서 아이들에게 때로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말동무가, 때로는 재미있는 수업을 해 주는 선생님이 되어줄 수 있어 더없이 보람차고 행복했다. 아이들의 순수한 에너지는 큰 힘이 되기도 했고, 이 활동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다. 베풀기 위해 시작했던 활동에서 되레 내가 받아 가는 게 많았던 것 같다. 아이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었던, 애정과 열정으로 꽉 찼던 이 10개월의 시간이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오유진

온누리지역아동센터



나중에 나라는 사람이 남아있길

초5

중2

대3

END

박선영

웃음꽃지역아동센터

나중에 뒤를 돌아볼 때 이 찰나의 시간이 기억에 남아있었으면 한다.
나에게도. 함께한 친구들에게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지나면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성장했을까?

변화가 생겼다면 성장이라고 볼 수 있을까?

10개월. 그 시간에 나는 대학생으로 살아가며, 막연함이 쌓여갔다.

하지만, 멘토링을 할 때면 현실의 짐들을 다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나의 미래보다 너의 미래를 같이 상상해 나가는 것이 소소한 행복이었다.

너의 맑은 모습에서 어렴풋이 빛을 보았던 것 같다.

모든 날이 완벽하지 않았지만,

날마다 마법같이 좋았다면 거짓말이지만,

나에겐 소중한 순간이었다.



끝이 아닌 시작, 고마운 마음 담아

성장

소중한 경험

고마움

가치점프 3기 발대식에 참가했던 날 멘토링 활동의 수료율이 92%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8%라는 많은 중도 포기자가 나오는 활동을 내가 잘 완주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끝까지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센터의 아이들 덕분이었습니다. 아직도 어떤 주제로 스물토크를 이어가야 할지 찢찢매던 첫날이 눈에 선한데, 벌써 헤어질 날이 다가온다는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쳐준 수학 문제보다 더 가치 있는 무언가를 받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나이에 볼 수 있는 평범함보다 비상함이 더 두드러진 친구들이기에 아이들의 멋진 미래가 더욱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어디선가 깔깔거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면 웃음꽃센터의 아이들이 가장 먼저 생각날 것 같습니다.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경험을 제공해준 웃음꽃센터와 인천공항, 사단법인 점프에 감사드립니다.

전은서

웃음꽃지역아동센터



멘티들과 함께 가치점프!

동반성장

열정

행복

우선 저는 함께 10개월을 가득 채워준 청소년 멘티들에게 가장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처음 멘티들을 만났을 때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렇기에 문제를 가르쳐주는 선생님보다는 아이들에게 언니, 누나로서 수업 시작 전 아이들과 서로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나 친구들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보다 더욱 깊은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큰 노력을 했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조금 느리더라도 기다려 주고 눈높이 맞춰 같이 공부하는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멘티 중 한 고등학생 멘티는 독일어를 배우고 싶어 했지만 수업 특성상 영어 수업을 진행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멘티의 배우고 싶은 의지를 저버릴 수 없었기에 수업 끝나기 10분 전 각자 공부해 온 독일어를 공유하면서 같이 배우고 가르쳐주는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수업 과정을 통해 아이들과 저는 함께 성장하게 되었고 아이들이 배우고 싶은 의지를 더욱 키워주고 싶은 마음이 커지면서 포기하는 법보다는 도전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또 이러한 저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듯 아이들이 오히려 저를 매번 밝게 맞이해 주고 더욱 세심하게 챙겨주면서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아이들의 열정도 느끼게 되고 아이들의 따뜻함이 오히려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최유정

으랏차차지역아동센터

대학생활 중 가장 뿌듯했던 일

성장

뿌듯함

아쉬움

조현서

으랏차차지역아동센터

인천공항 가치점프를 시작하면서 끝날 것 같지 않던 이 활동도 어느덧 끝나기까지 한 달 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처음 센터에 도착해서 센터장님과 아이들과의 첫 만남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말이죠. 한해의 시작을 인천공항 가치점프 장학생 활동으로 시작하고 한해의 마무리 또한 인천공항 가치점프와 같이한다는 것이 굉장히 감개무량할 따름입니다.

분명히 끝나면 뭔가 후련하고 좋은 경험이었다! 라는 느낌일 줄 알았는데, 굉장히 아쉽고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생각을 저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다가 아이들과 수업하면서 아이들 또한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업을 하는 도중에 어떤 한 아이는 “안 쉬고, 더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선생님 곧 안 오시면 혼자서 공부해야 되잖아요.” 라고 하는 것을 듣고는 굉장히 울컥하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돌이켜보면 시원섭섭한 마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족스럽지만 아이들에게 더 잘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성장에 조금이라도 발판이 되어주고 싶었지만 1년이라는 시간이 짧게 느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멘토링 해주면서 도움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저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물고기가 아닌 낚시대를 준다.

자기주도학습

성장

길잡이

고등수학

이한솔

으랏차차지역아동센터

3월 새 학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멘토링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고등부 수업을 맡기로 했기에 고등학교의 하교 시간에 맞춰 밤늦게 멘토링을 진행했습니다. 과외 형식으로 세 명의 학생을 수업하는 것은 새로운 도전이었고, 어떻게 하면 세 명의 아이들 모두에게 부족함 없이 수학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고민하며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동시에 3명의 아이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였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그 과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해답은 수학이 아닌 수학을 공부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4월의 중순쯤, 학습플래너와 수학 연습장 등을 구해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스스로 계획하고 공부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을 공부하도록 이끄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다행히도 아이들 중 한 명이 저와 같은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이었고 누구보다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며 다른 아이들을 격려하고 챙겨주며 서로 좋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이들에게 모든 고등 수학 개념을 알려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학교 선생님들처럼 수학을 알려주겠다고 다짐했던 것은 욕심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멘티 청소년들에게 스스로 계획하고 공부하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었고, 믿고 따라와 준 아이들 덕분에 이제는 걱정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압니다.



‘가치’로 ‘같이’에 이르는 여정

영어
역사
대회
같이
성장

김지우

인천행복한돌봄 임학지역아동센터

이름 그대로 ‘같이 점프’한 시간이었습니다. 어색했던 첫날에는 10개월이 아득하게 느껴지기도 했는데, 언젠가부터 계절의 변화가 아쉬워졌습니다. 가장 많이 멘토링한 과목은 영어입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 영어가 외계어 같다고 느낀 적 있는데, 멘티만큼은 그 부담감을 떨쳐내고 ‘어, 생각보다 쉬운데? 할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하길 바랐습니다. 빙고 게임, 골든벨 외 다수의 활동을 도입하며 오히려 제가 더 영어에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영어 실력이 느는 멘티를 보면서, 더 좋은 멘토가 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던 걸까요. 초반에 멘티가 영어 공부의 목표로 설정했던 일들을 꼭 이루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더불어 제 첫 목표는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내자’였습니다. 전공을 살린 멘토링에는 아쉬움이 남지만, 조금이라도 전공인 역사를 다뤄본 점이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 덕수궁 야간 개장을 관람했을 때 제가 좋아하는 세상을 나눈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역사는 행복해지기 위해 배운다면 믿습니다. 결국 제게 그 행복은 ‘나눔’인데, 짧은 경험이라도 멘티들에게 작은 새싹이 되었길 소망합니다. 영어 창작 영상 대회, 가치점프 LAB 등 함께 도전한 대회도 있었습니다. 멘티들의 성장을 응원하는 동안 제가 배운 점이 훨씬 많은 듯합니다. 인천공항 가치점프 3기 덕분에 소중한 경험을 가득 담아갑니다. 그 점프의 여정에 함께해 준 모든 분께 감사를 전합니다.



나눔의 성장터

뿌듯함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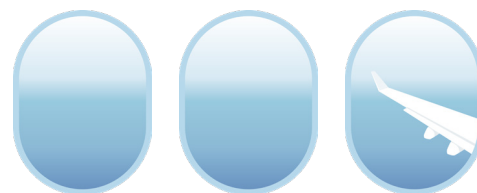
책임감

인천공항 가치점프 교육 봉사 활동으로 두 명의 고등학생들과 함께 한 10개월은 저에게도 큰 성장을 남겨주었습니다. 초반에는 주 2일 왕복 3시간가량의 센터에 방문하는 것이 체력적으로 힘들기도 하였고 고등학생이었기에 자료와 수업내용을 준비해가는 것도 버거울 때가 있었지만, 나날이 성적이 향상해가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고 싶고, 가르치는 것에 뿌듯함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항상 열심히 공부해주고, 고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확고한 꿈을 가진 학생들을 보면서 덕분에 저 또한 제 꿈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책임감을 가지는 장학생으로 보다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예진

청아한지역아동센터



나에게 2023년은...!!

성장

활력

감사

인천공항 가지점프 3기 장학생으로 활동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처음 면접을 봤던 순간, 노들섬으로 보수교육을 받으러 갔던 그날, 처음 센터에서 아이들을 만났던 기억 모두 생생하게 제 가슴속에 남아있습니다. 복학 후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여러 가지 고민들로 휩싸였던 감정 속에서 처음 맞이한 대외활동이었기에 더욱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3기 장학생으로 활동하며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했고, 심성이 착하고 해맑은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2023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걸 경험하고 바라보며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던 한해였는데, 그중에서도 인천공항 가지점프 활동은 저에게 매우 큰 비중을 차지했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시각과 봉사활동의 참 뜻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기에 제가 잠시 잊고 살았던 소중한 가치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궁금증이 있을 때마다 항상 친절하게 맞이해주셨던 인천공항 사무국, 센터에서 같은 시간을 함께했던 장학생분들과 복지사분들께 느꼈던 감사한 마음들을 앞으로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제 인생의 변곡점과도 같았던 시기를 함께 채워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신수민

청아한지역아동센터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줄게♡

함께

같이

가치

가치점프 멘토링 활동을 시작하면서 저는, 마르지 않는 샘처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1년을 보내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꾸준히 아이들을 만나면서, 차가웠던 학생이 많이 밝아지고 공부에 주눅이 들어 있던 학생이 자신감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의 1년이 가치 있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에게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게 해준 우리 센터 아이들이 고맙고 덕분에 저도 많이 성장한 1년이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며, 공부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기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저를 많이 좋아해주는 모습을 보며 그 꿈을 이룬 것 같아서 많이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1년이 감사하고 우리 센터 아이들에게 고맙습니다♡

양현아

청아한지역아동센터



주고 받는 힘

배움

소통

열정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나누려고 간 교육봉사에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받고 왔다. 멘티의 순수함과 사랑을 받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함과 정을 느낀 시간이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나에게 정말 짧게 느껴졌다. 진정한 신뢰와 공감에 있을 때 비로소 봉사가 이루어짐을 깨달았다. 이런 사소한 추억 하나가 앞으로 내 삶의 원동력이 될 것 같다. 그리고 활동을 통해 좋은 인연도 만날 수 있었다. 지난 봉사 기간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내가 도움을 준 것보다 받은 것이 더 많았다. 이번 활동을 통해 얻은 행복과 배움으로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다.

이민영

청아한지역아동센터



9개월 동안의 힐링

뿌듯함

재미

행복

김민주

청아한지역아동센터

안녕하세요! 저는 청아한지역아동센터 장학생 김민주입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2명의 학생과 고등학교 1학년 1명의 학생을 담당했습니다. 초반에는 어색하기도 하였지만, 생각보다 금방 친해져 즐겁게 수업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저녁에 센터에서 수업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지는 못한 것 같아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이야기도 하고, 공부도 할 수 있어서 좋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항상 숙제가 많으며 투덜거려도 다 해오는 연우, 학원 때문에 오래 못 있어도 와 있는 시간 동안 항상 열심히 했던 은서, 첫 고등학교 생활이라 걱정도 많았을텐데 잘 따라와 준 세린이 덕분에 9개월 동안 힐링하고 많은 것을 배우고 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파이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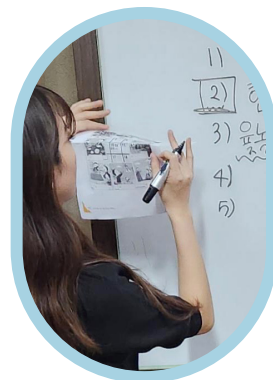
장학생, 나의 '가치점프'

성장

뿌듯함

공유

나는 인천공항 가치점프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으로 '한국어'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게 되었다. 여태까지 국어나 영어 등 다른 과목들을 가르쳐본 적은 있었지만, 한국어를 알려주는 것은 내게 새로운 도전이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활동 초반에는 많은 걱정이 있었다. 하지만, 아이들이 가진 언어적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노력하여, 시간이 흐른 후에는 학습 내용을 알맞게 선정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였으며, 아이들에게 좀 더 효과적인 설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즉, 나 자신이 한 걸음 성장하게 된 것이다. 또한, 활동을 시작하고 시간이 흐른 지금, 아이들이 내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연스럽게 공유하고 '나'라는 사람에 대해 궁금한 점을 종종 질문하는데, 내가 아이들과 유대감을 쌓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이었다. 더불어, 가치점프 활동이 얼마 남지 않은 최근, 아이들이 아쉬움을 표현하며 활동이 끝나면 슬플 것 같다는 말을 한 기억이 있다. 이때 뿌듯함과 아쉬움, 그리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아이들과 함께하며 배운 타국의 문화, 순수함, 그리고 열정은 내 기억에 오래도록 뜻깊게 남을 것이다. 끝으로, 우리 반 아이들, 그리고 함께 한 모든 분께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



이채은

푸른마을 함박도서관

얘들아, 너희들의 꿈을 응원해

희망

성장

이운재

푸른마을 함박도서관

저는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하는 아이들과 1년을 함께 수업했어요. 러시아어를 조금 할 수 있었기에 어느 정도는 수월했지만, 원활한 의사 소통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항상 아이들이 한국에 적응하는데 최대한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수업했던 것 같아요.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면, 아이들 한국어 실력이 처음보다 꽤 좋아진 것 같아서 뿌듯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저를 좋아하고 수업을 기다려주는 게 가장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앞으로도 한국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잊을 수 없는 소중하고 감사한 경험

인내

성장

감사

아이들과의 첫 만남을 앞두고 센터 앞에서 긴장하며 들어갔던 것이 었그제 같은데, 어느새 활동의 막바지인 것이 믿기지 않는다. 멘티들과 서먹서먹하며 어색하게 수업하던 기억이 난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하고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낮을 가리며 경계하던 아이가 함께 오목을 하자며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던 순간은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아이들을 대하는 것은 생각보다 더 어려웠고, 사실은 아직도 어렵다. 수업 중 돌발행동을 보이고 끝까지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릴 때는 나도 사람인지라 인내심의 한계가 올 때도 많았고, 정말 힘들었다. 또 두려웠던 점은 내가 하는 언행 하나하나가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영향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클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항상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아이들을 대함에 있어 신중하게 행동하려고 많이 노력했다. 힘든 순간들도 많았지만, 그 덕분에 내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이 성장해나가는 모습을 볼 때면 힘들었던 기억도 사르르 녹았다. 밥 먹다 말고 먹으라며 포도를 건네고, 클레이로 열심히 만든 인형을 선물해주고, 달려와 안기는 아이들, 쌤은 정말 고마운 사람이라는 말을 해주고 직접 만든 샌드위치를 건네던 아이까지 평생 잊지 못할 감동적인 순간들도 많았다. 멘티들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너무 소중하고 감사하다. 아이들 모두 항상 아픔 없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길 바라본다.

이경은

행복한동산지역아동센터



‘점수를 위한 학습’이 아닌 ‘꿈을 위한 경험’

경험

성장

다양한활동

체험

행복

아이들이랑 벌써 함께한 지 10개월이 넘었네요. 처음 센터에 들어왔을 때, 아이들 ‘학교 진도에 맞춘 학습’을 위주로 멘토링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이들과 한 달 정도 알아가는 시간을 갖다 보니, 아이들에게 있어 부족한 건 단순히 낮은 성적 점수가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는데요. 제가 담당한 아이들은 학교 끝나고 센터, 그리고 집이 전부였기에 ‘새로움’보다는 ‘익숙하고, 평범한’ 하루를 보내기 바빴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더 큰 꿈을 꾸기엔 어렵다는 점을 발견하여, 저와 함께하는 시간만큼 아이들이 더 많은 걸 경험하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평소에 ‘타인을 배려해, 나와 다른 친구를 이해해’를 단순히 텍스트로 배워 간접적인 입장이었다면, 그 사람의 입장이 직접 되어 보는 체험형 전시를 경험하게끔 했어요. 아이들에게 제가 열 마디 했던 것보다, 한 번의 경험을 한 후 타인을 이해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었어요. 이러한 현장 체험학습을 준비할 땐 쉽지 않았지만, 얻어가는 게 많았던 시간이라 뿌듯한 시간이었어요. 이 외에도 아이들이 갖고 있는 역량들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게끔 미술 대회부터 영상 공모전까지 다양한 방향으로 아이들과 함께했던 시간이 아이들의 성장과 함께 저의 성장을 만들어갈 수 있었어요. 멘토링 시간에 학습 외에도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더욱 탄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양제 같은 역할인 멘토가 되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아요. 다음 기수 장학생분들도 ‘점수를 위한 학습’이 아닌 ‘꿈을 위한 경험’을 많이 만들어주시면 더욱 풍성한 활동으로 기억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



신이지

행복한동산지역아동센터

멘토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 # 힐링
- # 배움
- # 애정
- # 경험

변은재

행복한동산지역아동센터

지난 10개월간의 멘토링은 저에게 '경험'을 선사해주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보내왔던 만큼 다사다난했지만, 아이들과 유대감을 쌓아가는 과정에서는 이해와 기다림의 중요성을 알았고, 친해진 후에는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더 도움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모두 맡았는데, 그중 초등학생 몇 명은 장난꾸러기들이어서 컨트롤하기가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소와 같이 수업하러 갔는데 장난꾸러기 두 명이 갑자기 저에게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을 위한 무대를 준비했어요."라고 말하고 커튼 뒤로 숨더니, 돌아서 속삭였습니다. "네가 먼저 이렇게 해!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할게" 말썹꾸러기들이 저를 위한 무대를 해준다는 것부터 감동이었는데, 돌아서 종알종알 속삭이는 게 얼마나 귀여운지, 그 순간 묘하게 저는 마음이 벅찼습니다.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저의 마음 한쪽에 크게 자리 잡았고 매번 다음 수업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행복한지역아동센터의 가족이 된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아이들을 단순히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라, 센터의 일원이 되었고 소속감 또한 느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인천공항 가치점프가 장학생들에게 지식적인 측면의 기회와 경력뿐만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좋은 가치와 경험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상황을 마주치고 해결해나갈 힘을 길렀고, 아이들과 저 모두가 성장할 수 있었던 날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점프

성장

뿌듯함

극복

보람

처음엔 마냥 길다고만 생각했던 10개월의 가치점프 활동이 어느덧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멘티들과 약간은 어색했던 첫 만남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부끄러워하며 눈도 잘 못 맞추던 멘티들이었는데 지금은 말도 많이 하고, 장난을 치고는 합니다. 멘토링을 거부하며 피하던 시기도 있었지만, 시간이 되면 먼저 찾아오는 지금 모습을 보니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저도 모르게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처음 활동을 시작할 때 목표가 멘티와 저 모두의 성장이었는데, 멘토링을 하며 힘든 순간들을 이겨내는 법을 배우며 성장한 것을 느꼈습니다. 활동 기간 동안 좋은 멘토가 되었다고 자부할 순 없지만, 멘티들에게 좋은 영향과 추억이 담긴 한 페이지가 되었길 바랍니다.

정현서

행복한동산지역아동센터



잊지못할

추억

디딤발

인생에 있어 다신 잊지 못할 경험
힘들었다면 힘들었지만, 그보다 더
값진 추억으로 남게 된 건 아마도

함께 시간을 보내온 장학생분들과
우리 멘티 친구들 덕분에 곳곳하게
웃으면서 지낼 수 있던 것 같다.

장난을 치면서 함께 문제를
풀어 오던 그 기간들이
멘티 친구들에게는 그저 지나간
날이 아닌 기억에 남는 일들이었으면 좋겠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멘티 친구들에게
웃음을 주고 싶다.

차정근

희망아카데미지역아동센터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오래 오래 익숙하게

사랑

성장

되돌아보기

이제는 헤매지 않고 적당한 주차 자리를 찾고, 센터 앞 횡단보도 신호가 어떤 규칙으로 변하는지 안다. 1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매주 왔다 갔다 했다고 살지도 않는 안산이라는 도시에 익숙해졌다. 그리고 안산의 센터에서 만난 아이들의 이름은 얼굴을 보지 않고 옆에서 들리는 목소리만 듣고도, 뒤에서 껴안기만 해도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익숙해진 안산이라는 도시만큼 익숙해져 이제는 내 삶의 일부가 된 아이들이다. 아이들과 있다 보면 이따금 놀랄 때가 많다. 내 생각보다 내가 아이들의 삶에 가까이 들어가 있구나 느끼는 순간들이 그렇다. 사소하게 대답했던 것들은 아이들에겐 약속이었다. 그럴 때면 익숙해져 까맣게 잊고 있던 나의 유년 시절들이 생각난다. 그래서 속상했고, 그래서 서운했던 순간들이 떠오른다. 그렇게 유년시절을 상기하는 순간들은 더 나아지겠다고 다짐하는 순간이 되었다. 하루는 한 달에 한 번 씩 있는 아이들의 생일파티 날에 센터에 갔었다. 어김없이 나도 이런 기억이 있었지, 하며 아이들의 생일파티를 지켜보고 있었다. 생일인 아이들이 고깔을 쓰고 꽃다발처럼 사탕을 한 아름 안고 서 있으면 다른 친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나와 오카리나로 생일 축하 노래를 연주 해주었다. 익숙했던 센터 생활에서 만난 생소한 순간이었다. 참 사랑스러운 아이들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언젠가는 오카리나 연주법을 까먹고, 생일엔 더 멋진 음악을 듣게 될 날이 오겠지 생각했다. 그런 생각이 들자 아이들에게 익숙한 오카리나 연주와 사탕 컵과 같은 지금의 순수가 더 잘 간직되길 바랐다. 나 또한 익숙해진 안산에서 만난 아이들과 생소해지는 순간이 조금 지연되길 바랐다.



김혜원

희망아카데미지역아동센터

모두 다 같이 가치점프!

기쁨

희망

가치

힐링

성공

다 같이 인천공항에서 모여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2월이 되어 수료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청소년들에게 제가 준 것보다 받은 게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재밌고 가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가치 점프를 통해 알게 된 장학생들 그리고 센터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길 희망합니다.



김채령

희망아카데미지역아동센터

센터 가는 날 = 힐링하는 날

즐거움

배움

아쉬움

인천공항 가치점프를 통해 자신을 많이 돌아보고 성장할 수 있어서 좋았다. 10개월이라는 짧고도 긴 시간 동안, 청소년 그리고 동료 장학샘들과 관계를 맺고 다양한 추억을 쌓아왔다. 초반에는 특히나 아이들이 학업에 집중하지 못할 때 힘들었고,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을 때 마다 지치기도 했다. 하지만 꾸준히 봉사하면서 행복감을 더 크게 느꼈다는 것을 깨달았다.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로 센터에서 아이들이 생일을 축하해 준 적이 있었다. 색종이로 반지를 만들어 주고 학교에서 받은 간식을 선물로 주었었다. 아이들의 작고 소소한 행동이지만 나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주었다. 이런 행복이 나의 일상적인 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따라서 더 도움이 되고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커졌었던 것 같다. 한편으로는 공부를 가르치는 것 외에 아이들과 색다른 경험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해 아쉬기도 하다. 앞으로 아이들이 지금처럼 밝게 잘 자랐으면 바란다.

김유진

희망아카데미지역아동센터



함께 성장하는 인천공항 가치점프!

재미

즐거움

뿌듯함

감동

성장

이지수

BTC지역아동센터

인천공항 가치점프 2기의 좋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도전한 3기 활동을 통해 성장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평소 좋아하던 아이들을 BTC지역아동센터에서 활동하며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함께하며 힐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멘티들과 학습하며 멘티들이 주는 믿음과 호감에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큰 것이 아닌 공부를 도와주는 소소한 능력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멘티들과 소통하며 새로운 관점이나 시선으로 함께 세상을 보며 멘티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진행했던 숲 체험 캠프를 1박 2일로 멘티들과 함께 웃음 짓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가치점프의 센터 활동을 즐기며 직접 실천하는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직원들과 함께하는 멘토링 데이를 통해 막막했던 진로의 고민도 해결해 가는 실마리로 작용해 새로운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인천공항 가치점프는 2023년의 가장 큰 추억이자 새로운 시작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멘티의 행복은 나의 기쁨

행복

성장

기쁨

학기 초 몇 달간 나를 보며 "누구세요"라고 통명스럽게 대하던 우리 BTC아이들, 이제는 센터의 인기스타 선생님이 되었어요. 10개월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려 아쉽기도 하지만, 그만큼 아이들과 소중한 추억을 많이 쌓을 수 있었어요. 처음에 센터에 왔을 때 아이들과 어떻게 친해질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어요. 저는 학습 시간 이외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보드게임을 하며 매우 친해질 수 있었답니다. 아이들은 저의 별명을 동물로 지어 불러줬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별명은 "날다람쥐"예요. 아이들의 발상은 정말 귀여운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중등 캠프에 참여한 일이었어요. 아이들과 축구도 하고, 게임도 하고, 고기도 구워 먹으면서 청소년 시절의 제가 생각나기도 하고, 사소한 것에 행복해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저에게 기쁨으로 다가왔답니다. 바로 수기의 제목을 "멘티의 기쁨은, 나의 행복"으로 지은 이유입니다. 활동 수기를 작성하며 지난날의 저를 되돌아보았는데, 내면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아직은 성숙하지 않은 아이들을 보며 나 역시 저런 시절이 있었던 것을 회상하게 되었고, 어린아이들처럼 저 또한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강력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치점프는 청소년과 장학생이 같이 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꼭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길태현

BTC지역아동센터



Bea. Tiful. Children

BT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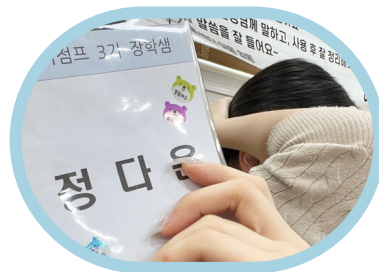
자기소개

중2

대4

정다운
BTC지역아동센터

아이들과의 첫 만남 하루 전, 열심히 PPT를 만들던 순간이 떠오른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더 쉽게 가까워질 수 있을까 고민하며 나를 소개하고 아이들을 소개할 수 있는 템플릿을 만들고자 했다. 그리고 첫 만남 당일, 각자의 MBTI와 좋아하는 연예인에 대해 이야기하며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던 순간이 떠오른다. 그렇게 시작한 첫 만남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활동 종료를 한 달 앞두고 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다. 두루뭉술 떠올리면 매주 비슷하게 반복되는 시간들이라 느껴지다가도, 자세히 곱씹어 보면 하루하루가 색다르고 다채로웠다. 단어시험을 몇 개씩 볼 건지 그 개수를 조율하던 순간, 함께 본문을 분석하며 왜 이런 내용이 나오냐며 투덜대던 순간, 목표하는 시험 점수를 이야기하고 목표 달성 시 과자 파티를 하자며 약속하던 순간, 학교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던 순간 하나하나가 소중한 추억으로 남는다. 이번 가치점프 활동을 통해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을 여러 번 겪을 수 있어 참으로 감사하다. 그리고 그만큼 아이들과 함께 나도 같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나와 10개월을 함께해 준 멘티들, 동료 장학생들, 센터 관계자분들, 점프 사무국 모두 정말 많이 감사합니다!



청춘 한 조각

재미

성장

청춘

공감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활동이었다. 하지만 막상 3월, 활동 시작을 앞두고 긴장으로 몸이 굳고 문득 무서움이 들었다. 그 후에 한 달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다. 돌이켜보면 나나 센터 아동들이나 서로에게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었다. 의욕만 앞서 고민하고 상처받고 힘들이던 시간이 이어졌다. 하지만 계속되지는 않았다. 우리는 점차 서로에게 적응했고 그만큼 가까워졌다. 서로에 대한 편견과 벽을 조금씩 무너트리고 가까워졌다. 그렇게 아이들은 나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주었다. 무언가를 가르쳐줄 생각이 만만이었던 내가, 활동이 끝나는 12월이 되자 더 많은 것을 배웠다는 것을 깨달았다. 생각보다 더 많이 성장하고 많은 것을 고민할 기회가 된 것 같다. 나를 한층 더 어른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 센터 선생님, 아동들, 동료 장학생들에게 큰 감사함을 느낀다. 이 기억을 오래 간직하며 언제나 새로이 도전하고 나누는 것을 아끼지 않으며 살고자 한다.

임이지

BTC지역아동센터



장학생 활동 사진

나가는 말



노란 개나리 싹이 꿈틀대는 따뜻한 계절부터,
거리마다 캐럴이 들려오는 코끝 시린 계절까지,
우리의 여정은 감동과 성장의 소중한 순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주배경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했던 시간은
무엇보다도 영광스러웠고, 여러 감정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더욱 의미
있었습니다.

모든 과정과 결과가 소중한 기억으로 남길 바랍니다.

이제는 함께 날아갈 시간입니다. LET'S FLY!

앞으로도 함께 꿈을 향해 날아가며 새로운 여정을 만들어 나갑시다.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빛나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그날을 기대하며,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공항
가치점프